

2014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화 사업  
"협동기금 정책,  
경영공시 참여  
첫발을 떼다"

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2015.01.22

# 서울지역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, 「기반강화 및 시스템 구축」

## 자조역량강화

- 지역협의회 지원
- 업종모임 모색
- 서울협의회 비전 수립

## 경영자원 구축

- 협동기금 정책수립
- 경영공시 교육 및 홍보, 참여 권장

## 사회적파트너십 강화

- 대외협력 강화
- 월간정책동향 발행
- 청소년 협동조합 교육

# 서울협의회 협동기금 정책 방향 수립

사업준비팀 : 전재홍, 김대훈, 이미연

목적	현장의 기금수요 및 대출제도 애로점 등 문제의식 정식화	
	문제의식에 바탕한 공론화와 기금조성 정책방향 수립	
1단계	사회적경제 타 부문 fgi	마을, 자활, 사회적기업, 사회투자지원재단
현장 의견	복지서비스분야 협동조합	한국의료사협연합회,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, 서울한겨레두레 협동조합
fgi	일반협동조합	전국막거리유통협동조합,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, 나무그늘협동조합 등

## 타 부문

한기협 공제기금  
사회혁신기금 조성  
마을, 광역자금 구상  
자활, 지역별 공제조합

## 복지 서비스

비영리적 성격, 조합원 서비스 제공  
  
초기 개설비용 수억원 부담(연합회 기금운영),  
  
7년 이상 장기대출 or 건물매입 임대 수익

## 일반협동조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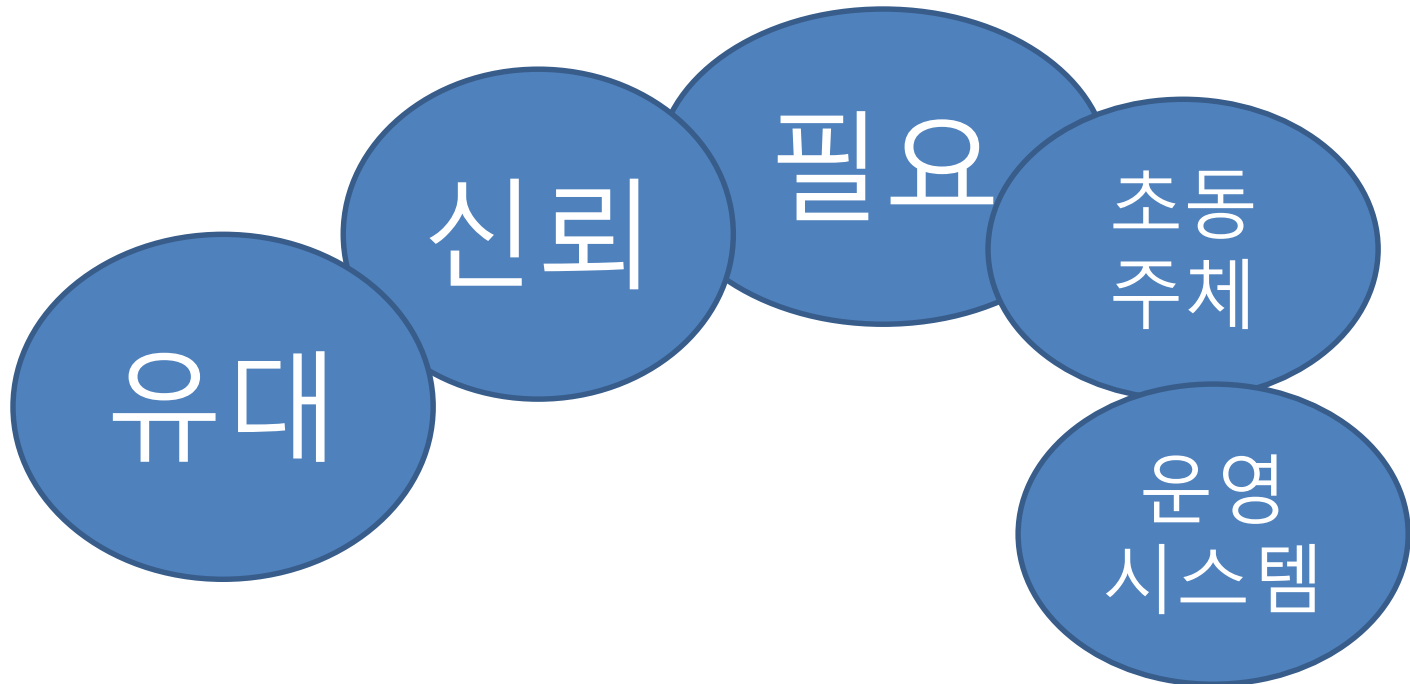
장부 평가방식, 정착 필요한 곳 배제,  
  
광역단위 기금 필요. 낮은 금액목표로,  
  
신뢰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구축돼야

# 협동기금 3회 워크숍

1회차 11.28 (금), 사경센터 1층	협동기금 필요 한가?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기금운영 주먹구구식이며 교육필요</li> <li>-기금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나서기 어려움</li> <li>-초기 개설자금 5억 ~ 10억까지 소요(협동조합 출자 1/3 제한으로 자본조달 어려움)</li> <li>- 기금 조성 시기는 이르나 공감대 형성 위해 논의는 필요</li> <li>- 신생 협동조합 위한 기금 시급, 규모의 경제 초석</li> </ul>
2회차 12.3 (수), 아이쿱 생협4층	협동기금, 어떻지?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서울시 사투기금, 북서울신탁 협동조합 대출현황 분석 '대출부적격자를 기금에서 안을 수 있는가?'</li> <li>-행복중심생협연합회의 복지기금 매회연도 조성, 사용 '기금에 대한 다양한 접근, 볼론티어 성격임'</li> <li>-성미산 대동계 신뢰에 기반한 운영, 500만원까지 무담보 대출</li> <li>- 기금 수요자와 조성자가 일치하는 방식, 불일치하는 방식?</li> <li>- '조성 주체간 신뢰형성, 소액지원 격려와 용기 삶의 기회'</li> </ul>
3회차 12.17 (수) 사경센터1층	협동기금, 어떻게 할까?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주발제(장종익교수) -토론자(문진수, 노협, 청년, 지역협)</li> <li>-상위의 목표와 가치의 통일이 필요하다</li> <li>-작은 돈이라고 쌓으면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</li> <li>-협동조합은 장부 외 다른 형태의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</li> <li>-작은 단위에서 운영해보고 손실률 등을 측정해봐야 한다</li> </ul>

# 협동조합진영, 15년 기금조성

- 목적: 일반신생협동조합 지속 협동기금
- 용도: 긴급자금, 미래의 협업 전망 등
- 서울협의회에서 기금조성단 구성, 종잣돈 조성



# 자율경영공시 어떻게 다가갈까?

- **사업목적**

- 협동조합의 정보공개원칙, 투명한 운영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
- 경영공시 문화 확산
- 해당 협동조합 운영 및 재무재표 정리, 체계적 관리틀 만들어짐

- **경영공시 특강 3회 진행**

10월  
15일, 지역  
협의회 대  
표자회의

11월 25일,  
구로구  
협의회

12월 22일  
노원지역  
협의회

→ 참여 低

# 경영공시 참여실적, 불참사유

사회적협동조합 2, 일반협동조합 5 = 7개  
(자바르떼, 함께걸음의료사협) (쿠피, 꿈품협, 해피비릿지,  
행복한돌봄협동조합)

- 경영공시하기엔 시간 내공,인력 다 부족(규약 정비해야)
- 현금으로 소액 받는 수입원, 회계처리방식 못 정해서
- 협동조합 유형 전환기로 결정, 내부 정비 안됐음
- 지금의 매출이나 운영면에서 총회에서 조합원 공유정도 적당
- 하루에 이런저런 전화만 10통, 물품받는 것도 힘들다
- 아직 경영공시할 내용이 없다
- 수입이 2곳으로 입금되어 정비해야 함
-

# 제기되는 쟁점

- 경영공시, 기본법에서 의무대상(조합원 200인 이상, 자기 자본 30억 이상/사회적협동조합)이 아닌데 꼭 해야 하나? 당위 대비 개별 조합의 시간과, 인력, 비용이 많이 든다.
- 매출규모가 되지 않는데, 경영공시하면 대외적으로 부실 기업처럼 보일 수 있지 않는가?
- 일반협동조합 현 단계에서 경영공시의 추진 방향과 방법은 무엇인가?



# 경영공시, 교육과 홍보 단계

## 교육

- 교육단계
- 경영공시
- 이해 하기
- 홍보하기

## 사례

- 다양한
- 개별의
- 참여 사례
- 만들기
- (양적 목표가 아님)

## 지원체계

- 정리양식
- 제공
- 참여조합 인센티브 제공
- 참여조합
- 사례 홍보
- 문서정리
- 인력지원

# 2015년 과제

경영공시 확약한 조합  
경영공시 이행 및  
서울협 차원의 홍보

경영공시 이행 한  
협동조합 워크숍  
(경영공시 참여동기, 준비  
과정, 공시 후 변화, 이후  
과제)

서울협의회 차원에서  
경영공시 교육 일상화

참여 사례를 바탕으로 교안 작성  
참여자 중심 강사풀 구성